

체크카드 외면, 카드론 급증… 카드사, 건전성 ‘적신호’

1분기 체크카드 이용액 급감
신용 의존 늘며 카드론 급증
연체율 상승에 부실 우려 커져
수익성 낮아 경쟁력도 하락

올해 체크카드 이용 잔액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드론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금 유동성은 떨어지고 부채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체크카드 이용 잔액은 36조545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380억원 감소했다. 연간 우리카드의 체크카드 이용 잔액이 3653억원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1378억원, 1187억씩 감소했다. 지주계열 카드사만 놓고 보면 하나카드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1분기 연간 847억원 증가한 3조1874억원을 기록했다. 지



Chat GPT가 생성한 ‘현금이 없어서 돈 빌리는 사람’ 이미지.

난해 지주계열 카드사가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영업에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실패한 셈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지주계열 카드사의 경쟁 무대로 봐도 무방하다.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비지주계열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영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지주계열 카드사 3곳 중 개인 체크카드 이용 잔액이 가

장 높았던 곳은 현대카드다. 연간 1조1005억원 승인했다.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0.71%에 그친다.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관측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만큼 신용혜택에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했다. 영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기존 0.25% 0.15%로 낮아졌다. 관관비를 고려하면 금액수록 손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문제는 카드론 잔액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카드사 9곳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42조5005억원이다. 연간 2조536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3819억원 감소한 1조4535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크카드 이용률이 떨어지고 카드론 잔액이 증가하면서다.

체크카드는 기존에 있는 현금을 사용한다. 사실상 결제기능만 제공하는 만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연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론의 경우 연 15% 안팎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은행권 대출 대비 금리가 높아 연체율 증가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분기 비씨카드와 NH농협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7곳의 평균 연체율은 연 1.83%다. 전년 동기(1.76%)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카드의 연체율이 0.34%p 상승했다. 현대카드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카드사 모두 연간 카드론 취급액을 확대한 영향이다. 지난 4월말 기준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카드론은 각각 7797억원, 6777억원 증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나빠졌으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부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월 보험료 1만원 수준 엘리스간병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생밀착형 보험 플랫폼 ‘엘리스’(ALICE™)를 통해 ‘FORME 간병보험’(엘리스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엘리스 간병보험’은 ▲간병인 사용시 하루 최대 10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최대 30만원 ▲중환자실 입원 시 하루 최대 30만원 등 간병 관련 보장만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만 19세부터 6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불필요한 특약 없이 핵심 간병 보장만 담아 40세 기준 남성은 9300원, 여성은 1만100원 등 월 보험료를 1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 시 최대 3000만원,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5급 판정 시 500만원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자금’ 특약을 담았다. 현재 모바일 채널(CM채널)에서 이 같은 특약을 담은 상품은 엘리스 간병보험이 유일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출시한 ‘엘리스 간병보험’은 간병 보장만 담아 1만원 대의 보험료로 핵심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가성비까지 갖춘 상품”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무주택자만 가능한 줍줍… 첫 물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자격 무주택자 한정
실거주 입증 확인 절차도 강화

이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졌다. 청약 신청 자격을 완화한 지 2년 여 만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 당

첨될 경우 분양가와 현재 시세와의 큰 차이는 물론 청약통장·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와 ‘로또 청약’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흑석자이’의 경우 한 세대 모집에 10만4924명이 몰렸고, 작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은 경쟁률이 1만3472대 1에 달했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줬다.

예를 들어 300만명 가까이 몰려 청약 흠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경기도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 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 서다.

제도 개선 이후 첫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2022년 12월 청약 당시 분양가는 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39㎡ 7억1520만원, 49㎡ 8억8100만원, 59㎡ 10억6250만원, 84㎡ 13억2040만원이었다. 국민평형인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8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원에 거래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타자 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오름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2억↑
‘뚝뚝한 한 채’ 중심 상승폭 확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다. 비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뚝뚝한 한 채’ 수요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북권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50%), 강남구(0.40%), 서초구(0.42%) 등 강남권은 물론, 마포구(0.30%), 광진구(0.15%), 성동구(0.26%) 등 강북 지역

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8억3000만원에 거래돼 두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같은 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는 20억2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직전 최고가(19억9800만원)를 경신했고,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도 전용84㎡가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이 같은 흐름은 2024년 2월 DSR 1단계 시행을 앞둔 시기와 유사하다. 당시에 도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지원 기자

5856건으로 전월(4046건) 대비 44.7% 증가했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는 예상대로 규제 강화의 여파가 본격화되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6781건에서 2만4356건으로 33.8% 줄었고, 수도권 및 지방 전역에서도 거래 감소세가 이어졌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 축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사실상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강도 높은 규제다. 시장 전반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양지역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대출 없이 매입하는 고자산가 비중이 커 DSR 규제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